[제2016-73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6.10.14 (금)	담 당 자	Tammy Chung 323-936-3015

<'합동무용공연' 우리춤의 멋과 흥에 취하다>

▶ 공연명 :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2016 ARI Project」
'합동무용공연' 우리춤의 멋과 흥에 취하다
(Korean Folk Dance Festival)
▶ 일시 : 2016. 10. 28(금) 19:30
▶ 공연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최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미주한국무용가협회(회장 임미자)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2016 Ari Project」그 열세번째 무대로 미주한국무용가협회(회장 임미자)과 함께하는 **<'합동무용공연' 우리춤의 멋과 흥에 취하다> (Korean Folk Dance Festival)** 공연을 10.28(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합동무용공연' 우리춤의 멋과 흥에 취하다>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1989년부터 미주지역에서 창작과 후배양성, 한국무용의 해외선양 등 미주한국무용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미주한국무용가협회 임미자 회장과 한국과 미주지역 중견무용가들이 함께 마련한 공연이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홍진희(현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수석이수자/한국), 김지립(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한국), 홍영옥(홍댄스 컴퍼니 대표/뉴욕), 박성신(현 한국국악협회 미 텍사스지부 지부장/텍사스), 안순희(안순희 한국무용단 단장/오레곤), 이주미(오레곤), 김정희(오레곤), 이정임(이정임무용단 원장/LA) 등 한국과 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중견무용가 8명이 참가하여 공연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 민속춤이 지닌 정.중.동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는 태평무를 시작으로 부채산조, 입춤, 한량무, 즉흥시나위, 장고춤, 즉흥무, 내 마음의 흐름(김진걸류) 등 다양한 우리 전통무용의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별히, 이번 공연 마지막무대는 이정임무용단의 재미한인 2세,3세 청소년 무용단원들이 대북장단을 큰북과 사물북으로 함께 재창작한 북의 합주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춤을 향한 열정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뉴욕, 오레곤, 텍사스, LA, 한국 등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이 다함께 마련한 공연무대라서 더욱 뜻 깊고, 이번 공연이 관객분들께 큰 감동으로 전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임미자회장은 "미주한인 무용가들과 한국과 타주에서 와주신 무용가들이 함께 한국인 특유의 문화예술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주한국무용가협회 임미자 회장은 중앙대학 무용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콩쿨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국립무용단 단원, 한국민속촌 무용단 단장, 한국무용협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89년부터 미주지역에서 창작과 후배양성, 한국무용의 해외선양 등 미주한국무용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합동무용공연' 우리춤의 멋과 흥에 취하다> 프로그램 설명자료

1. 태평무(한영숙류) - 안순희, 이주미
이 춤의 형, 질은 진쇠 가락, 낙궁, 터벌림, 도살풀이 등의 가락을 바탕으로 겹걸음, 따라 붙이는 걸음, 잔걸음, 무릎들어 걷기등 남치마자락 밑으로 내비치는 발디딤의 기교가 뛰어나 외씨버선의 멋이 돋보이는 발짓춤이면서도 손놀림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도가 있어 우리 민속춤이 지닌 정중동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다.

2. 부채산조 - 박성신
산조란 흩어져있던 가락이나 동작을 모아놓은 것을 일컫는데 부채산조춤은 특히 입춤의 춤사위를 기본으로 하였고 부채를 소품으로 사용하였다. 가야금산조곡에 맞추어 꽃처럼 향기롭고 단아한 한국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몸놀림과 발놀림이 여유로우며 산조춤이 가지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움을 잘 나타내준다. 기본적인 몸짓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부채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섬세하게 정.중.동의 신비롭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게 하는 매력을 갖춘 산조춤이다.

3. 입춤 - 이정임
흥풀이춤의 일종인 흥과 멋이 춤의 주체이며 분위기에 따라 흥과 멋을 조율하면서 출 수 있는 즉흥성을 발휘한다. 이 춤의 춤사위는 전통춤의 기본적 움직임 위주로 짜여져 있으며 굿거리, 자자진모리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장단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4. 한량무 - 김지립
한량이란 조선시대 의기가 있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대부를 말하는데, 김지립의 한량무는 장전, 중전, 세전, 돋음세, 디딤세, 완자거리, 잉어거리, 까치체, 비정비팔, 잔걸음등 우봉 이매방의 춤사위 원리를 바탕으로한 정.중.동. 대삼. 소삼 등 음과 양의 멋을 흥취와 정감으로, 역동적인 장부의 풍류의 기개를 미학적으로 새롭게 창출한 작품이다.

5. 즉흥시나위 - 홍영옥
여인의 단아한 멋과 나비처럼 훨훨 날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6. 장고춤 - 안순희, 이주미 소리- 김정희
장고는 우리 농악기중 으뜸가는 악기이다. 장고를 메고 전통민요에 맞춰 주는 장고춤은 한국민속무용의 백미이고, 설장고는 음악의 음의 리듬과 공간예술인 무용의 동작과 박자를 미묘한 조화를 이루어내고 활발하고 신명나는 춤판으로 만드는 작품이다.

7. 즉흥무 - 홍진희
즉흥무란 말그대로 어떤 양식이나 구애됨이 없이 춤꾼이 분위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추는 춤으로 그 사람의 예술적 감성과 끼를 가늠할 수 있는 매력있는 춤이다.

8. 내 마음의 흐름(김진걸류) - 임미자

명무 고 김진걸선생님의 춤에 대한 열정과 춤사위가 압축된 산조춤이다. 서정적이고 고상한 품격의 춤으로 남도지방의 악곡인 산조를 철가야금으로 연주한 음악을 사용하는데 음률의 독특하고 다양함에서 오는 춤사위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단모리, 휘모리순으로 음악과 함께 어느 형태에도 구애됨없이 자유롭게 마음의 흐름에 따라 춤추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한국춤의 명작무로 꼽히는 작품이다.

9. 북의 합주 - 이정임무용단

전통 북소리를 천가락 만가락이라고 표현한다. 그 전해 내려오는 대북장단을 큰북과 사물북을 함께 타악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한국의 맥박소리인 우리의 북장단을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한인 2세, 3세 청소년 무용단원들이 직접 배워서 시연한다.

**프로그램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미자

1961.2 중앙대학 무용과 졸업
1961. 동아일보 주최 신인무용가 등용 선발대회 금메달 수상
1966 제 1회 임미자무용발표회 (명동 시공관)
1966~1989 TBC, KBS, MBC TV안무및 출연 1000여회이상
1970, 4 국립무용단 단원
1974~1975 한국민속촌 무용단 단장
1982,2~1988 한국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이사
1984,3~1988 명지실업전문대 무용강사
1994 임미자무용발표회 (윌셔 이벨극장)
1995 임미자무용발표회 (라미라다 공연예술극장)
2000 임미자무용발표회 (윌셔 이벨극장)
2004 명인명무전 (호암아트홀)
2005 명인명무전 (호암아트홀)
2006 명인명무전 (국립국악예악당)
2009 우리 민속 한마당 (경복궁)
2011 서울 국제 문화대학 외래교수 임명
2016 임미자무용연구소 원장 및 현재 미주 한국무용가협회 회장

/끝/